

중국, 한국산 BPA 덤프조사 연장

상무부, 11월12일까지 6개월 연장 ... 일본산 카테콜은 반덤핑 조사

중국 상무부는 5월12일 한국산을 비롯해 타이완,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산 Bisphenol-A에 대한 반덤핑 조사기간을 2005년 11월12일까지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4년 3월21일 BlueStar Chemical New Material이 중국 Bisphenol-A 생산기업을 대표해 제기한 덤프조사 신청이 받아들여져 2004년 5월12일 중국 상무부의 덤프조사가 시작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조치이다. Bisphenol-A는 중국 HS 코드 29072300에 등록돼 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5월31일 미국과 일본산 카테콜(Catechol) 덤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테콜은 중국 관세청 수입 관세법 HS 코드 29072910에 등록돼 있다.

중국 상무부는 수입 카테콜이 덤프 구성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긍정적 결론이 나면 덤프방지 관세율을 책정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2006년 5월31일 이전까지 조사를 종결해야 하지만 특정요건에서는 2006년 11월3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중국 유일의 카테콜 생산기업인 Lianyungang Sanjili Chemical은 2001년 미국산 카테콜에 대한 덤프조사를 요청해 중국 상무부는 2003년 미국산 카테콜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중국 상무부의 덤프조사 결정은 2004년 Sanjili가 제기한 덤프 재조사 신청에 따른 것이다.

2004년 중국은 카테콜 생산량이 1500여톤을 기록했고 수요량은 7300여톤에 달했다.

<화학저널 2005/07/11>